

청소년부문 - 최우수상

나에게로 온 두 번째 선물

부산혜화여자중학교 김소현

작품소개

15-20년 뒤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마을. 그곳에 발을 디딘 서울에서 온 예쁜 여자아이는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보인 시골 소년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여자 아이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을 극복하는 소년의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로봇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찬아! 나기찬! 밥 먹고 가야지!!"

"늦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휴, 저 천방지축을 어찌하면 좋을까..."

사실은 걸어가도 늦지 않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같이 기분 좋은 아침을 밥 먹느라 때울 수는 없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참 예쁘다. 바쁘고 삭막한 모습을 보며 걷다 보면 다른 세계라 해도 될 듯한 꽃들이 고개 들어 인사하고 개미들도 분주히 새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비록 학교로 가는 등갓길이지만 내 삶의 소소한 낙이라 할 수 있겠다. 학교에 다다르자 벌써부터 시끌벅적하다. 저만치에서 내 절친이라 불릴만한 양동이 녀석이 뛰어온다.

"야! 나기찬!!"

"천천히 와라 넘어...!"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말 끝나기 무섭게 넘어지고 말았다. 참고로 양동이의 이름은 양동희이다. 이름도 양동이 처럼 들리는데다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 대서 너도나도 붙여준 별명이자 애칭이다.

"쓰읍.... 아야 아파라..."

"그러게 누가 그렇게 뒤래. 안 아프냐?"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야 근데 너 그거 들었냐?"

"그게 뭔지 말을 해줘야알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온데!"

"진짜?"

"아 그럼 당연하지. 게다가 듣기로는 엄청 예쁘데! 빨리 보러 가자"

양동희와 같이 눈썹 휘날리게 교실에 도착해서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만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선생님 뒤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자자 다들 정숙하고. 알 사람은 알다시피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다들 친하게 지내고. 전학생, 간단한 소개 한번 해봐."

"안녕, 내 이름은 이루리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아이는 제법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반엔 남는 책걸상이 없어 옆반에서 빌려와 일 분단 맨 뒤 왼쪽에 놓고 앉았다. 내 뒷자리에 전학생이 앉으니 약간 긴장되고 뒷통수가 따끔거렸다. 그때 뒤에서 자그마한 손길 하나가 나를 툭툭 건드렸다.

"저기... 내가 오늘 교과서가 없는데 같이 볼 수 있을까?"

살짝 당황했지만, 오늘 처음 온 전학생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듣게 할 순 없었다. 결국, 난 1교시부터 책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자는 내 짝지 양동이를 뒤로 하고 책상을 뒤로 놓았다. 수업은 시작됐지만 난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왜 다들 그런 적 있지 않은가 아직 어색한 친구와 책을 같이 볼 때, 내 쪽으로 더 가져오기도 그 친구 쪽으로 더 밀어주기도 애매해서 그냥 어물쩍하게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그냥 나중에 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 지금 내가 딱 그 상황이란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로 아무 말 없이 책만 멍하니 보고 있던 그 때 그 아이가 내심 고맙게도 먼저 자그마한 종이 한 장을 건네었다.

'넌 이름이 뭐야?' 난 그 글씨 밑에 더 굵은 펜으로 짤막하게 적었다.

'나기찬' 그걸 보더니 말을 이어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다.

'책, 고마워' 짤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난 답변을 써주는 것 대신 살짝 눈짓했다.

유난히 시곗바늘이 느리게 달리던 첫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걸 본 순간 난 속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에라, 또 그 지긋지긋한 로봇트가 하는 말이나 들어야 하는군' 정보 선생님은 특이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 선생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성이 부족하다는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아니다. 매일 같은 모습을 하고 매일 같은 목소리를 낸다. 매일 같은 패턴의 수업을 진행하고 단 한 번도 말실수하거나 수업자료를 잘못 챙겨온 적이 없다. 하물며 아주 칼같이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담임선생님께 보고한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실제로도 그럴지만) 선생님이다.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자 반장, 인사할까요."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각자 컴퓨터를 켜고 오늘 배울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다른 과목이라고 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보 시간에는 특히나 신기하고 복잡하게 생긴 물건들이 쓰인다. 모든 수업은 몸에 부착하는 탈부착 형태의 개인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컴퓨터를 몸에 달고 다니니 내 몸이 마치 딱딱한 옷을 입은 양철 로봇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지만 무척이나 신기한 것은 틀림없다. 손을 스크린에 가져다 대지 않아도 간단한 손짓이나 말, 눈동자의 움직임, 또는 생각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조종할 수 있고 내 눈앞에 교실이 아닌 컴퓨터 속에서 그려낸 세상이 펼쳐지면서 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보아하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 드론 제작 프로

젝트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해 인공지능 키드로와 대화하기다. 최첨단 스마트 드론 제작 프로젝트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드론들과는 달리 스마트폰처럼 이리저리 접거나 구부려서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왔던 드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고, 조종기나 조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종하는게 아니라 사용자를 인식하여 사용자의 말이나 손짓, 또는 아직 시험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개발중인 특수한 레이저포인터를 사용해서 좀 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조종될 수 있다고 한다.

“키드로, 안녕?”

키드로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기찬님. 오늘도 저와 함께 정보 나라로 떠나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키드로의 말과 동시에 화면에는 YES/NO가 띄워졌다. 당연지사 YES를 눌렀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찬님, 우선 저에게 최첨단 스마트 드론 제작 프로젝트에 관한 본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어... 난 말이야 아까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름만 드론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마음대로 드론의 형태를 바꾸고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

“그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문제점? 드론의 문제점은 이점 만큼이나 아주 많지. 특히 불과 세 달 전에 일어났던 치킨 재밍 사건만 봐도 말이야.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받아 움직이잖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전파를 발생시켜 신호를 교란시키면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그걸 누가 이웃에서 배달시킨 치킨을 재밍으로 슬쩍하려다 조종이 서툴러 드론을 떨어뜨렸잖아. 근데 그 집이 16층이었다니 밑에 사람이 지나다녔으면 어쩔 뻔 했어.”

“맞아요, 그리고 드론으로 인한 도촬, 도취 사건은 여전한 골칫덩어리죠, 카메라를 부숴버릴 수도 없고... 정말 그런 나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게나 말이야. 근데 키드로 오늘 수업은 언제까지야?”

“수업하기 싫으신 모양이군요. 기찬 님! 그럼 저랑 오목 게임이나 한판 하실래요?”

“키드로 웬일이래? 나야 좋지. 하자!”

“나기찬”

“.....”

“정신차려 기찬아.”

“아 왜 뭐 무슨 일인데”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불러대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어 버렸다.

“수업 끝났어. 안 일어나고 뭐해.” 이루리 였다.

“아... 벌써 마쳤구나.”

“보아하니 아주 깊게 잤구나. 같이 올라가자.”

“어어 그래.”

키드로랑 한창 오목을 하고 있었는데, 깜박 잠들었나 보다. 그럼 좀 깨워주지 키드로... 아, 아직 그런 기능은 없나?

너와 같이 계단을 오르던 중 너의 윗옷 주머니에 곱게 접혀 꽃힌 하늘색 천 조각이 보였다.

“이건 뭐야? 되게 예쁜 하늘빛이야.”

“아... 저 이 이건,”

그 때, 말을 더듬는 너의 뒤로 대단히 크고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뭐야 나기찬! 너 왜 애랑 같이 오냐? 내가 너 임마 일부러 자는거 알고 그 로봇선생 한테 혼쭐 좀 나보라고 놓고 왔는데 말야.”

“뭐? 이 짜식 너 일로 와봐라.” 나는 곧장 양동이한테 달려들어 우린 서로 뒹굴며 레슬링 아닌 레슬링을 하고 있었다.

“야 니네 뭐해!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도 그렇지 너무 시끄럽잖아!”

반장이다.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1등, 미상으로도 1등이다.

“어휴 재는...” 양동이가 손을 탈탈 털며 일어나면서 읊조렸다.

“자기도 시끄럽게 수다나 떨고 있었으면서 말이야. 반장을 잘못 뽑았어 아무래도.”

“다 남자애들이 뽑아줬잖나. 쪼매 얼굴 반반하게 생겼다고.”

“에이 재가 이쁘면 안 예쁜 사람 없겠다. 차라리 오늘 전학 온 이루린가 하는 개가 훨 예쁘겠구만 안 그래?”

“어... 아 그런가?”

“여하튼 알미운 강윤아. 언젠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어휴, 니네 둘은 도대체 언제 화해할래...’ 나는 생각했다.

“자, 내일은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체육대회 날이다. 다들 오늘 게임하지 말고 일찍자라. 지각하지 말고. 자, 반장 인사”

“차렷,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야, 나기찬! 축구 한판 하고 가자!” 양동이가 말해왔다.

“오늘은 안돼. 우리 삼촌이 미국에서 직수입한 따끈따끈한 로봇 조립 키트가 도착했다고 빨리 오라고 하셨거든. 축구는 내일 실컷 하자.”

“에이, 그럼 하는 수 없지. 잘 가라.”

“어 내일 보자.”

나는 재빨리 책가방을 싸고 뛰어나올려 했다. 그때 무엇인가 발에 밟혀 내려다보니 하늘색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다.

‘이 루 리’

주워들어 보니 이루리라고 적힌 이름 세 글자가 보였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갈까 생각했지만 잠시 망설여졌다. 뭔가 이걸 계기로 말 몇 마디라도 더 섞어보고 싶었다. 왜 그럴까.

난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곧장 삼촌 집으로 뛰어갔다. 뛰어감에도 불구하고 느릿느릿 올라오는 들꽃 향기와 풀내음이 나의 발걸음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삼촌! 저 왔어요!”

“어 그래, 기찬이구나, 어서 들어와라.”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간 삼촌 집은 참 골동품 같다. 우리 삼촌은 무인 자동차 연구 개발자이신데 사실은 완전 로봇 매니아이다. 집에 쌓아둔 로봇 모형과 그림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아 물론 아 로봇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로봇들이다,

“자, 봐라. 이게 바로 내가 아주아주 어렵게 모신 로보로보사의 신상품이다.”

“우와, 진짜 멋져요! 삼촌 최고!”

“하하. 그래그래. 재밌게 가지고 놀아라.”

“네, 삼촌. 근데 왜 오늘은 출근 안하세요?”

“오늘은 야간 근무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새 모델도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될 거야.”

“그게 바로 자동차 앞 유리에 스마트 스크린 기능을 추가해 자동차 유리를 컴퓨터처럼 쓸 수 있다는 그건가요?”

“허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맞아, 그게 시장에 내놓아지면 틀림없이 대성공을 이룰거야.”

“응원할게요, 삼촌. 전 이만 숙제하러 집에 갈게요.”

“그래, 근데 갈 땐 가더라도 이걸 챙겨야 하지 않겠니?”

삼촌은 내 주머니에서 흘러진 손수건을 건네며 말하셨다.

“아, 그 그거 이리 주세요. 친구거예요.”

“오호,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기찬이가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다니 궁금하구나.”

난 얼굴이 달아올라서 삼촌 집을 뛰쳐나왔다. 얼른 전해주고 집에나 가야겠다.

“잠깐만, 근데 이루리 집이 어디지?”

지금까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전해주려 했던 것이다.

“아, 바보. 그냥 내일 주지 뭐.”

난 허탈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통을 빙 둘러 걸어갔다. 내 습관이다. 다들 손가락 까딱하면 원하는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지만 이렇게 시골에는 작은 시장이 남아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뿐이다. 여기에 오면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그렇게 걷던 중,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 저 멀리 보였다.

“야 이루리!”

저만치서 걸어가고 있는 루리는 내 부름이 들리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재빨리 뒤를 쫓아갔다. 계속 쫓아가고 있던 중 루리는 어느 주택 대문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꽤나 크고 오래된 집이었는데 비워진지 오래인 집이다. 나는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릴까봐 더 빨리 달렸다. 루리가 들어가서 대문을 닫으려할 때 나는 겨우 앞까지 와서 루리를 불렀다,

“헉헉... 루리야 잠깐만.”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루리가 다시 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난, 온몸의 털이 쭈뼛 설 만큼 내 눈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

“.....”

대문 너머 보이는 작은 앞뜰에 휠체어를 타고서 책을 읽고 있는 루리와 정말 200% 똑같이 생긴 아이가 보였다. 일란성 쌍둥이라 하기에 도 틀릴 것처럼 그 이상으로 똑같았다. 도플갱어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들어와.”

나의 녀이 나간 생각을 깨는 목소리였다. 이루리의 목소리지만 내가 모르는 아이가 내는 목소리.

“안으로 들어와. 루다 너도.” 그 아이는 루리를 루다라고 불렀다.

난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 안은 밖에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었고 확실한건 엄청난 부잣집인 것 같았다.

“여기 코코아. 마셔.”

그 아이는 자기의 것과 내 것만 내왔다. 루리한테는 코코아를 내주지 않았다.

“저기 왜 내 것만...”

“아, 애는 코코아 못 먹어.”

“왜?”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쇳덩이로 뒷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였다. 이걸 정말 내 귀를 믿지 못하겠다.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실 애는 말야, 내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야.”

나의 부정을 깨우쳐 주는 듯 그 애는 다시 한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

나는 정말 반쯤 혼이 나가 있었다,

“지금도 보다시피 난 서울에 살다가 하룻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나를 친 그 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순간 장애물 감지를 못하고 그대로 나와 부딪혔지, 그래서 그때부터 난 한쪽 다리를 잃었어, 다행히 우리집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아버지는 나에게서 외국기업이 만든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의족을 해주셨어. 그리고 난 시골로 보내졌지. 여기서 조금 쉬다 오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오게 된거야.”

“그럼 내가 지금껏 봐왔던 이루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 같은데...”

“루다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아무래도 니가 싫어하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거 같아.”

그 말을 들은 루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계속 말할게. 나는 이곳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시킨대로 집에서 컴퓨터로 학교를 다녔어,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여기에서 나 혼자 하루 종일 화면 속만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어. 난 학교에 가고 싶었어, 진짜 학교에. 하지만 이 다리로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 개발사인 인텔리피아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루다를 만들었어. 난 루다가 학교에서 보고 듣고 알아온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얻어 간접적으로나마 학교 다니는 기분을 내는 거지.”

“아니 잠깐만. 난 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그럼 재는? 루리는 너랑 같은 사람인거야?”

“사람이 아니라니깐. 재는 이루다야. 내 동생이라 할 만하지.”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루다, 아니 이루리는 너랑 달라. 너랑 말하는 투도 다르고 운동도 엄청 잘해. 너랑은 그저 걸모습만 같아 보일 뿐이야.”

“그것도 어찌면 내가 만들어 낸거야. 난 루다가 나보다는 더 완벽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 그래서 일일이 그쪽한테 부탁한거야. 나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부분들은 좀 고쳐달라고 말이야.”

“그... 그래도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 이루리는 너가 아니라 재라고!”

내 말을 들은 진짜 이루리는 흘깃 입가에 미소를 띄우곤 말했다.

“루다가 마음에 든 모양이구나.”

“.....”

“그럼 가봐, 저기에.”

진짜 이루리는 어느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에 들어가자 니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여기... 네 손수건.”

“아, 고마워.” 한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때 이 손수건이 왜 소중한냐고 물었었지?”

“어? 어...”

“이건 말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물건이야. 내가 만들어질 때 카메라 렌즈가 예민하니까 잘 닦고 다니라고 개발사에서 나한테 만들어줬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이루리가 나한테 준거지만 이것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한테 온 선물이라서 가장 소중한.”

“아...”

“이것도 나한테 온 선물이려나?”

너가 갑자기 나를 짚으며 말했다.

“뭐...? 내가?”

“그렇지 않을까?” 너는 그 말을 하며 깔깔 웃었다. 웃는 모습 마저 영락없는 사람이었다.

“이번 선물은 좀 더 특별하네.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챙겨주잖아!”

“나에게로 와줘서 고마워, 내 두 번째 선물아!”

‘아냐, 내가 더.’

‘뭐야 이루다... 난 너한테 그런 사랑이나 관심 따위의 감정은 넣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런 건 어디서 배워온거야 대체.’